

#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숙향<sup>1</sup>, 김형모<sup>2\*</sup>

<sup>1</sup>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sup>2</sup>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s of Abuse Damage on Aggressiveness in the Convergence Era: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Sug-Hyang Kim<sup>1</sup>, Hyung-Mo Kim<sup>2\*</sup>

<sup>1</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Doctor, Gyeonggi University graduate school

<sup>2</sup>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rofessor, Gyeonggi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초4 패널 중에서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WIN 21.0을 사용하여 대상의 일반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다중공선성을 확인 한 후 매개변인 효과를 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경로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피학대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강화의 중요성과 모든 청소년들의 성공적인 성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자아탄력성 강화가 필요함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의미를 가지며, 이를 토대로 청소년을 대상으로는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이 제공이 사회복지실천에서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 학대피해경험, 공격성,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resilience's mediation effects in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damage on aggressiveness in the convergence era. Towards this end, this study used the 7th year data (2016) (4th grade to the first year of high school) of 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orrelations between experience of abuse damage, aggressiveness, and resilience variables were confirmed using multicollinearity VIF values. Second, adolescent's abuse experiences significantly affected their aggressiveness. Third, the partial mediation effects of resilience were shown in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abuse damage on their aggressiveness. For the verification of mediation effects' significance, the Sobel test was carried out.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a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data.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proposed the need of resilience consolidation programs for adolescents in the practice of social welfare.

**Key Words** : Adolescent, Experience of abuse damage, Aggressiveness, resilience, Mediation effect

\*This work was supported by Kyonggi University's Graduate Research Assistantship 2017.

\*Corresponding Author : Hyung-Mo Kim(hkim66@hanmail.net)

Received December 13, 2017

Revised December 20, 2017

Accepted February 20, 2018

Published February 28,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공격성은 타인에게 심리적 또는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1], 또한 공격성은 심리적으로 사물 또는 상대에 대해 파괴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 행위로 발현되는 것으로 유형은 욕설, 말다툼, 폭행으로 나타나게 된다[2]. 이렇듯 공격성은 심리상태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발현될 경우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나아가 범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공격성이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도를 넘을 정도로 또래를 폭행하는 사건들이 보도되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매우 심각하게 사회문제로 이슈화 되고 있다. 일례로 2017년 9월 1일에 발생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은 후배가 버릇이 없어서 버릇을 고치려고 집단 폭행을 함에 있어 흥기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3]. 이 외에도 강릉 여중생 폭행사건, 인천 초등학교 살인사건 등 10대 청소년 범죄는 날로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공격성은 심리적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이를 발현시켜 행위로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다. 이에 사회적 분위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형사 처벌 특례를 규정한 소년법 등 관련법들을 폐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은 간과할 수 없을 정도임은 분명하다. 이렇듯 청소년의 공격성이 날로 심각해지는 것에 대해 원인을 규명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환경적인 요인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4-6]. 청소년은 발달단계에서 부모와의 관계형성을 기초로 하여 타인과의 관계로까지 영향을 미친다[7]. 한편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가 타인과의 부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로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과잉행동을 하거나 공격성 수준이 높아 대인관계에도 성공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었다[8-11].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6)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5년 19,208건에서 2016년 29,671건으로 증가하였으며, 2015년 대비 2016년 10,463건이 증가하였다. 또한 이중에

서 아동학대의심사례가 2015년 2,465건에서 2016년 3,604건으로 2015년 대비 2016년 1,139건이 증가하였으며, 학대유형으로는 2016년에는 중복지학대가 8,980건(48%), 신체학대 2,715건(14.5%), 정서학대 3,588건(19.2%)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행위자로는 2016년에는 부모가 15,048건(80.5%)로 이 중에서 친모가 5,923건(31.7%), 친부가 8,295(44.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주 양육자(친부모)와의 관계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결과이며, 부모와의 부정적인 관계는 대인과의 관계형성에도 부정적일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대인관계가 미숙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동인 욕설, 폭행을 할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높은 수준의 공격성은 청소년기에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의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이러한 제안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에 대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된다. 청소년이 자신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격성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에 공격성을 통제하고 조절하여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이라고 본다. Block(2006)는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으면 상황과 사건에 대해 상황을 잘 견디거나, 충동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보았다. 홍성희(2014)와 김주환(2011)도 자아탄력성은 상황과 사건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하여 문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제라고 하였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새로운 또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들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제임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의 공격성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본 연구는 심리적 치료 서비스를 요하는 피학대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강화의 중요성과 모든 청소년들이 성공적인 성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예방적 차원에서 자아탄력성 강화가 필요함에 대한 실증적 자료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실천적

개입에 있어 실증적 자료로써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소년 개인 간의 성공적인 관계 기술을 위해 자아탄력성을 보고자 한다.

### 1.1 선행연구 고찰

#### 1.1.1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자녀는 출생부터 부모와 가장 많은 시간을 갖는 체계이다[16]. 이러한 체계 내에서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기의 특성인 급격한 발달단계인 이 시기에는 많은 결정과 상황들로 인해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진행될 것이다. 이처럼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청소년과 상호교류하고 있는 체계 내에서의 관계가 불안정해지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성이 행위로 발현되어 욕설을 하거나 폭력을 상대에게 가하게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청소년의 폭행사건들이 이를 잘 반영하는 사건들이다. 정서적 학대피해경험이 성인기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서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측면에서 손상을 입게 된다고 보고되었다[17].

또한 이아영과 유서구(2011)의 연구결과에서는 학대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과 가구소득정도가 공격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불안정한 발달단계에 더욱 불안정한 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을 예측할 수 있으며, 불안정한 상태로 인해 대인관계에 있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하여 자신의 욕구와 목적달성의 위해 공격성의 유형인 폭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부모에 의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기파괴적이며, 공격적 행동 빈도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19].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부모로부터의 학대행위가 자녀에게 학습되어 자녀가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연계성을 가진다고 보듯이,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다[20]. 학대와 공격성 간의 종단적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21]. 따라서 학습된 공격성은 청소년기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기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며, 향후 성인기에까지 이어져 성인기에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성별[22,23], 가정의 경제적 수준[24]에 따른 연구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공격성 수준이 높으며, 빈곤이 지속될수록 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인 성별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청소년기에는 활동범위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인관계도 많아지는 시기이며, 이 시기에는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도 변화가 매우 큰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청소년은 많은 변화의 과정에서 상황과 사건에 어떻게 적응하느냐에 따라 나아가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청소년에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하게 되면 공격성 수준이 높아져 체계들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상황과 사건에 대처하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격적인 행위, 언어 등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귀결되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을 잘 하는 청소년들에게서의 보호요인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

이처럼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충분히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모로부터의 학대피해경험과 청소년의 공격성을 알아보고자 함은 청소년 공격성 수준이 날로 심각해지면, 정도 또한 심각해져 사회문제로 관심이 높아진 것에 대해 실증적 자료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 1.1.2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학대와 공격성 간의 연구는 지속되어 왔다. 일례로 1990년대에는 정서학대가 다른 학대에 비해 부정적 결과에 더 영향을 미치는 연구[19,25,26]가 보고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학대를 경험할수록 대인관계에 있어 경쟁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8,29,30,31]. 이처럼 학대피해경험이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학대피해경험과 공

격성 간에 보호요인을 검증한 연구가 RISS와 국회도서관을 검색한 결과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보호요인을 밝히는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보호요인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향은 청소년기의 가장 큰 특징인 이전의 발달단계와는 달리 신체, 정서, 사회적으로 변화하는 발달단계로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요인을 자아탄력성으로 보았다 [11]. 또한 김종운과 최미숙(2014)의 연구에서도 체계들 간의 갈등 속에서 통제와 조절을 융통성 있게 발휘할 수 있는 보호요인으로 자아탄력적이라고 하였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로 김보라와 이규민(2010)의 연구결과에서 자아탄력성이 높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정지영(2011)은 청소년이 일련의 사건과 상황들에 합리적으로 잘 적응해 갈 수 있는 보호요인을 자아탄력성으로 보았다. 이 두 연구에서와 같이 자아탄력성은 발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건들과 상황들에 대해 통제와 조절을 적절히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보호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높은 공격성 수준에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연구들이다.

이러한 자아탄력성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호요인임을 예측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적응, 또래관계, 비행행동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들 중에서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33]는 공격성에도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해영(2015)의 연구에서는 학대피해경험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

성을 매개로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목적인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뒷받침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부정적인 상황과 문제에 대해 자기통제와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기제로 학대피해경험으로 인해 공격성 수준이 높은 청소년에게 매우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4년 9월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2017)는 점에서 청소년은 부모로부터의 학대에 노출될 확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특성을 반영한다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가 청소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있음을 가정한다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에 대해 자아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공격성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실증적 자료로써 제공함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고 한다.

연구문제1.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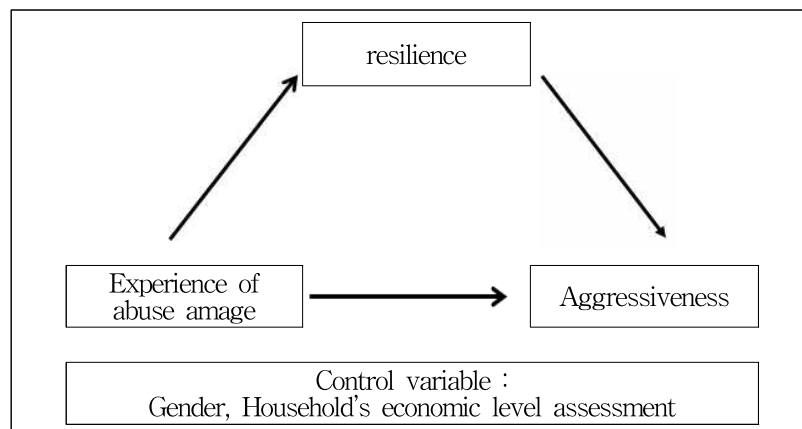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연구문제2.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매개효과를 갖는가?

## 2.1 연구모형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2. 연구방법

### 2.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에서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7차년도(2016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으로 선정된 대상자 중에서 연구의 모든 변수들의 결측값, 무응답이 있는 대상은 제외한 나머지 1,918명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 2.2 주요변수의 측정

#### 2.2.1 독립변수 : 학대피해경험

학대피해경험은 부모(양육자)가 자녀에게 행해지는 신체·정서학대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4개 문항으로 Y26의 26번~29번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학대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계수는  $\alpha=.832$ 이다.

#### 2.2.2 종속변수 : 공격성

공격성은 청소년이 종일 화가 나거나,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으며, 싸우거나 방해하는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종속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6개 문항으로 Y12의 8번~13번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

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부정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공격성 신뢰계수는  $\alpha=.820$ 이다.

#### 2.2.3 매개변수 :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은 청소년이 친구에게 너그러우며, 어려운 상황 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잘 적응하며, 에너지가 넘치며, 새로운 것에 대한 탐색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도에 대한 질문 문항을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측정도구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데이터 초4 7차 년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14개 문항으로 Y14의 1번~14번 문항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그렇다’ 1점, ‘그런 편이다’ 2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3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내기 위해 긍정문항은 역코딩한 점수로 투입하였으며, 본 연구의 자아탄력성 신뢰계수는  $\alpha=.820$ 이다.

#### 2.2.4 통제변수: 성별, 가정의 경제수준 평가

선행연구결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성별(1=남, 0=여)은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으며, 주관적 가정형편(1=매우 잘 사는 편, 2=잘 사는 편, 3=약간 잘 사는 편, 4=보통 수준, 5=약간 못 사는 편, 6=못 사는 편, 7=매우 못 사는 편)은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 2.3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조사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데이터 초4 패널 중에서 7차년(2016년)도 데이터를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Person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매개변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경로분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중3 남학생이 1,000명(52.1%), 여학생이 918명(47.9%)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에 대해 ‘매우 잘 사는 편’ 29명(1.5%), ‘약간 잘 사는 편’ 211명(11.0%), ‘잘 사는 편’ 305명(15.9%), ‘보통’ 1,127명(58.8%), ‘약간 못 사는 편’ 175명(9.1%), ‘못 사는 편’ 66명(3.4%), ‘매우 못 사는 편’ 5명(.3%)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인지하는 주관적 가정형편 정도는 보통 수준이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3.2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기술통계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대피해경험 평균은 3.42(SD=.57)로 나타났으며, 공격성 평균은 1.83(SD=.54), 자아탄력성 평균은 2.86(SD=.38) 수준으로 나타났다.

#### 3.3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검증

회귀모형 적합도를 판단 할 수 있는 모델 1의 F값은 31.426( $p<.001$ )이며, 모델 2의 F값은 95.315( $p<.001$ )이며, 모델 3의 F값은 91.757( $p<.001$ )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력은 모델 1에서는

4.7%이며, 모델 2는 13.0%, 모델 3은 16.1%로 나타났다. 설명력이 모델 1보다 모델 2가 8.3% 증가하였으며, 모델 2보다 모델 3의 설명력이 1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회귀모형의 적합도는 Baron & Kenny(1986)이 제안한 3단계 모형 모두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1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beta=-.114$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54$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태도( $\beta=.086$ ,  $p<.001$ ) 독립변인과 자아탄력성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동시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모델 2에서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인 성별( $\beta=.091$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109$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학대피해경험( $\beta=-.325$ ,  $p<.001$ )는 종속변인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3에서도 연령( $\beta=.071$ ,  $p<.001$ ), 주관적 가정형편( $\beta=.081$ ,  $p<.001$ )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대피해경험과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공격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경험 변인이 공격성 변인에 미치는 영향이  $\beta=-.325$ ( $p<.001$ )에서  $\beta=-.310$ ( $p<.001$ )으로 감소하였다. 그래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beta=-.180$ ,  $p<.001$ )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N=1,918)

| Variable                              | Category       | Frequency (N) | Ratio (%) |
|---------------------------------------|----------------|---------------|-----------|
| Gender                                | Male student   | 1,000         | 52.1      |
|                                       | Female student | 918           | 47.9      |
| Household's economic level assessment | Very wealthy   | 29            | 1.5       |
|                                       | A bit wealthy  | 211           | 11.0      |
|                                       | Wealthy        | 305           | 15.9      |
|                                       | Moderate       | 1,127         | 58.8      |
|                                       | Poor           | 175           | 9.1       |
|                                       | A bit poor     | 66            | 3.4       |
|                                       | Very poor      | 5             | .3        |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N=1,918)

| Category                   | M    | SD  | Min value | Max value | Skewness | Kurtosis |
|----------------------------|------|-----|-----------|-----------|----------|----------|
| Experience of abuse damage | 3.42 | .57 | 1         | 4.00      | -1.108   | 1.163    |
| Aggressiveness             | 1.83 | .54 | 1         | 3.83      | .194     | -.543    |
| Ego-resilience             | 2.86 | .38 | 1.71      | 3.93      | .423     | .264     |

Table 3. The Mediation Effects of Ego-Resilience in the Effects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 on Aggressiveness(N=1,918)

| Category             |                                 | Model 1<br>(Independent variable-> Mediation Effects) |          | Model 2<br>(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          | Model 3<br>(Independent variable, Mediation Effects-> Dependent variable) |          |
|----------------------|---------------------------------|---|----------|--|----------|---|----------|
|                      |                                 | B (SE)  | β        | B (SE)   | β        | B (SE)  | β        |
| Control variable     | Age                             | -.088(.017)   | -.114*** | .099(.023)   | .091***  | .076(.023)  | .071***  |
|                      | Subjective family circumstances | -.062(.009)   | -.154*** | .061(.012)   | .109***  | .045(.012)  | .081***  |
| Independent variable | Experience of abuse damage      | .058(.058)  | .086***  | -.310(.021)  | -.325*** | -.295(.020)   | -.310*** |
| Mediation Effects    | Ego-resilience                  |   |          |  |          | -.253(.030)   | -.180*** |
| Constant             |                                 | 2.932***  |          | 2.614***   |          | 3.355***  |          |
| R <sup>2</sup>       |                                 | .047  |          | .130   |          | .161  |          |
| F(sig)               |                                 | 31.426***   |          | 95.315***  |          | 91.757***   |          |

Table 4. Verification on the Significance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s, Aggressiveness, and Ego Resilience's Mediation Effects

| Path   | Z     | P value | Mediation effect         |
|--|-------|---------|--------------------------|
| Experience of abuse damage → Ego resilience → Aggressiveness | -3.51 | p<.001  | Partial mediation effect |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공격성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86 \times -.180 = .015$ 이며, 총 인과적 효과는  $-.310$ (직접효과) $+.015$ (간접효과)를 합산한 결과  $.325$ 이다.

### 3.4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공식을 사용하여 확인한 결과 Z값이  $-3.51$ 로 매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Sobel Test 결과 산출된 Z값이  $1.96$ 보다 크거나  $-1.96$ 보다 작으면 영가설이 기각되어 매개효과가 있다는 것이 검증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Sobel Test 결과 부분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한다.

##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학대피해경험 독립변인과 자아탄력성 매개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두고 동시에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은 자아탄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김수정과 정익중(2013)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함을 확인하였다. 자아탄력성 수준이 낮은 청소년은 많은 변화와 성숙과정에서 경험하는 부정적인 사건과 상황에 대해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어 성인기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지 못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은 대인관계 실패로 또래와 친구,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인 학대피해경험은 종속변인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잦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문재화(2009)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은 신체적인 정서적인 학대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지발달, 사회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은 부모의 폭력성을 학습하여 청소년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결과이다. 이인정과 최해경(2006)은 아동·청소년기에 학습되어진 것은 성인되어서도 지속적으로 발현된다고 하였다.

또한 학대피해경험과 자아탄력성을 독립변인으로 두고 종속변인인 공격성 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대피해경험 변인이 공격성 변인에 미

치는 영향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부분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탄력성 변인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이혜영(2015)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보호요인 중에서 변화에 불안정한 청소년기에는 탄력적으로 문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요인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변화에서 경험해야 할 상황들과 폭 넓어진 대인관계에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며, 부정적인 상황에도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것도 청소년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발달이 성공적일 때 성공적인 성인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인정과 최해경(2006)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높을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아짐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학대피해경험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가 있어 자아탄력성이 보호요인으로써 설명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대피해경험 횟수가 많을수록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며, 자아탄력성이 학대피해경험과 공격성을 부분매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아탄력성은 학대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공격성에 부분매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자아탄력성은 현재 사회적으로 심각한 정도로 사회문제 되고 있는 청소년 간의 폭력사건을 줄일 수 있는 기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형성에 있어 발생하는 부정적 상황이나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해 융통성 있게 탄력적으로 대체할 기제인 자아탄력성은 위기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의 자녀를 훈육함에 있어 공격적인 행동, 언어 등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근 청소년 간의 공격성에 대해 사회적으로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논의만이 아닌 공격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실천개입에 있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탄력성을 강화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학대의심사례 신고에 대해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학

교는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학대의심사례는 학대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상황과 사건에 탄력적으로 잘 헤쳐나야 갈 수 있는 보호요인인 자아탄력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강화시키는 프로그램이 자유학기제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실행 방안에 있어서는 지역 내 청소년심리상담센터의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통해 예방적 차원에서의 자아탄력성 프로그램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연구로써 향후 프로그램 개입을 통한 변화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자아탄력성의 효과성 검증은 생애주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REFERENCES

- [1] B. London, G. Downey, C. Bonica & L. Paltin,(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 [2] P. Orpinas, F. Frankowski(2001). The Aggression Scale: A Self-Report Measure of Aggressive Behavior for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1(1), 50-67.
- [3] Curious Story of SBS(2017). Why Could not the Cruel Violence Case of a Middle School Girl in Busan be Prevented?. Y 375 sessions. aired on Sep. 8.
- [4] S. Y. Rho(2001). The Mediation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Control Cap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Children's Aggressiveness,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 [5] D. H. Han(2012). Individual Internal Factors Affecting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and Aggressiveness. Graduate School of Ajou University. Master's Thesis.
- [6] J. Y. Jung(2013). The Effects of Parental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Children, Children's Self-Concept, and Peer Perception on Children's Aggressiveness. Graduate School of Sungkyunkwan University, Master's Thesis.
- [7] Bowlby(1980). Attachment and a loss, New York: Basic Books, 3.



- [8] A. Y. Lee, S. G. Yu(2011). The Effects of Couple's Violence Exposure Level and Child Abuse Experience on Children's Aggressiveness: Focused on the Data of KYPS. *Study of Youth Welfare. 13(2)*, 225-245.
- [9] M. J. Park, B. G. Choi(2004). Ecological Variables Having Effects on Adolescents' Relational Aggressiveness. *Journal of Korea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2(3)*, 1-18.
- [10] H. Y. Shin & H. R. Choi(2003). Correlations between Abuse Experiences from Parents, Aggressiveness, and Interpersonal Uneasiness - Focused on the High Graders of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15(2)*, 295-307.
- [11] Y. J. Lim, E. H. Lee(2000). Children's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Ability and Social Behavioral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eer Positio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8(1)*, 9-23.
- [12] National Child Protection Agency(2017). [www.korea1391.go.kr](http://www.korea1391.go.kr)
- [13] J. Block, J. H. Block(2006). Venturing a 30-year Longitudinal Study. *American Psychologist. 61(4)*, 315-327.
- [14] S. H. Hong(2014) The Effects of Mother Attach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on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Experience. Graduate School of Sungkyu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15] J. H. Kim(2011). Pleasant Secrets Transforming Resilient Ordeals into Good Fortune, Wisdom House.
- [16] R. R. Greene(1991). Human Behavior Theory and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Aldine De Gruyter.
- [17] H. I. Kim, M. S. Shin & E. J. Kim(2012). Correlations between Emotional Abuse Experience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in Adulthood: The Mediation Effects of Emotional Perception Difficulties and Expression Control. *Journal of Korea Society for the Emotional & Behavioral Disorders. 4(4)*, 353-380.
- [18] A. Y. Lee, S. G. Yu(2011). The Effects of Couple's Violence Exposure Level and Child Abuse Victimization Experience on Children's Aggressiveness. *Focused on the Data of KYPS. Study of Youth Welfare. 13(2)*, 225-245.
- [19] S. H. Go(1992). Child Abuse Concept Regulation and Perception Trend in the Children of Mothers on Child Abuse. Graduate School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octoral Dissertation.
- [20] Y. J. Lee, H. G. Choi(2006). Human Behaviors and Social Environment, Nanam Publishing House.
- [21] H. S. Park, J. Y. Park & J. E. Kim(2014). The Longitudinal Causal Relationship of Parental Abuse and Children's Aggressiveness: Focused on Differences in Poverty Group and Non-Poverty Group. *Korean Society of School Social Work. 29*, 1-24.
- [22] M. K. Cho, C. K. Kim & S. H. Jung(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Latent Mean Analysis of Gender among Abuse, Peer Attachment, Self-Respect, Depression and Aggress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Association of Youth Welfare. 16(2)*, 54-79.
- [29] J. H. Mun(2009). Effects of Children's Abuse Experiences by Type on Behavioral Problems and Peer Relationship.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 [30] S. H. Hong, H. G. Park(2013). The Mediation Effects of Rejection Uneasiness Sensitivity in the Relations between Emotional Abuse on Children and Peer Harrassment.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2)*, 59-74.
- [31] E. S. Byeon, J. Y. Lee(2016). The Effects of Emotional Abuse on Children's Overt and Relational Aggressiveness: The Mediation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ccording to Gender. *Journal of Korea Psychological Association: Counseling and Psychological Treatment. 28(4)*, 1125-1149.
- [32] G. H. Kim(2017). The Mediation Effects of Ego Resili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Parental Negligence and Abuse and Adolescents' Adaptation to School Life. *Journal of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4)*, 413-423. DOI :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413>
- [33] H. Y. Lee(2015). The Effects of Adolescents' Abuse Experiences on Juvenile Delinquency - Verification of Ego Resilience's Mediation Effects and Social Support's Control Effects. *Research of Correction Welfare. 37*, 89-119. DOI : <http://www.earticle.net.libproxy.kyonggi.ac.kr:8088/article.aspx?sn=250262>
- [34] S. J. Kim, I. J. Chung(2013). A Longitudinal Study of Persistent and Recency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Depression, Anxiety and Aggression.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3*, 1-28.

김 숙 향(Sug-Hyang Kim)

[정회원]



- 2010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
- 2018년 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18년 1월 : 경기복지재단 초빙 연구위원

▪ 관심분야 : 사회복지정책

▪ E-Mail : kimsughyang@naver.com

김 형 모(Hyung-Mo Kim)

[정회원]



- 1994년 2월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 1996년 6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M. S. W.)
- 2000년 5월 : University of Minnesota, School of Social Work(Ph.D.)

▪ 2001년 3월 ~ 현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 E-Mail : hkim66@hanmail.net